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권순명* · 이승휘**

1. 머리말
2. 지역 아카이빙의 이론적 배경
 - 1) 지역과 지역 아카이빙
 - 2) 지역기록의 유형과 범위
 - 3) 지역아카이빙 사례
3. 지역기록 수집절차 설계
 - 1) 지역기록화의 목적과 범위설정
 - 2) 지역기록 현황분석
 - 3) 지역기록 수집전략 설계
 - 4) 지역기록 수집실행
 - 5) 수집평가 및 보완
4. 지역 아카이빙 지속화 방안
 - 1) 지역기록의 생산전략 도입
 - 2) 지역 아카이빙 네트워크 구축
5. 맺음말

* 주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현 KBS 탐사보도팀 전문리서처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기록학연구』 18, 2008;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와 등기실체제(Registry System)」 『기록학연구』 17, 2008;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의 기록관」 『기록학연구』 13, 2006

[국문초록]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 아카이빙, 지역기록, 민간영역, 지역성

1. 머리말

2008년 5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4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대학로 문화지구 4주년’이라는 작은 축제가 열렸었다.¹⁾ 하지만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 배경이나 지역의 역사 및 관련 기록들을 볼 수 없었고, 대신 가수와 동아리 등의 축하공연만이 행사를 채우고 있었다. 비단 문화현상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문화와 삶, 활동 등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인간

1)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리 1.5km² 구간인 혜화와 동숭동 일대, 13만6천여 평의 혜화동 대학가 지역인 ‘대학로’는 지난 2004년 5월 특정한 문화적 현상이 존재한다 하여 그것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의 불완전한 기억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생산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기록학계와 시민조직들의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 공공영역에 대한 기록관리 인식은 크게 진전되었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록의 퍼즐은 부분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까? 기록관리가 행동의 증거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라면 민간영역 역시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예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²⁾를 들 수 있다. 2008년 하반기에 철거된 세운상가는 대형전자상가들의 시초로 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곳이다. IT강국의 입지를 굳힌 대한민국의 힘이 이곳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수많은 IT전문가와 회사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용산과 강남지역에 주도권을 뺏기게 되어 ‘화려한 흥가’로서 지난 세월을 버텨오다 결국 철거된 것이다. 하지만 세운상가 부근에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세운상가를 포함하여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지나간 역사와 그 안에서의 삶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석탄업이 부흥했던 시기, 항상 축제와 같았던 탄광마을의 기차역은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버려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가와 퇴계로 3가 사이를 잇는 2층형 상가 단지로서 1968년 서울특별시에 의해 조성되었다. 당시 세운상가는 서울의 최초이자 유일했던 종합 가전제품 상가였다.

고 결국 철거되는 역사를 겪었다. 지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차역은 과거에 대한 상징이자 마을의 구심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발의지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지역과 문화들이 역사와 활동을 담보해줄 기록과 공동의 기억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삶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담아 낼 그릇이 없는 것이다.

지역을 아카이빙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성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 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삶과 문화를 품고 있는 지역들이 모여 국가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면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아름다운 수채화가 그려질 거라 생각한다.³⁾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 아카이빙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을 구성하는 변방으로서가 아닌, 주체적이고 내포적인 지역과 지역성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공동체적 생활을 지속하는 작은 규모의 지역 또는 집단, 문화적인 현상이 뚜렷한 곳, 그리고 지역민들의 삶과 애착이 있는 모든 곳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공동체적 삶의 측면에서도 지역 아카이빙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과 기록들이 곧 지역의 역사이자 지역성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지역성을 확립하는 것은 곧 정체성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것을 위해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삶과 기록들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성들

3)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집단과 활동에 의해 다채로운 색을 칠해가고 있다. 그러한 다채로운 색은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시민활동, 지방자치 시대와 그 안에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 등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을 보존하는 것은 곧 국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증거 및 재현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필요성과 운영방안 내지는 기록물관리와 보존환경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전히 국가기록 관리체계(National Archiving System)를 전제로 하는 기록관리 현실 때문에 그 이후의 논의는 사치였던 것이다.⁴⁾ 그러나 지역 아카이빙은 기존의 국가기록 관리체계의 틀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로컬빌딩(Local Building)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아카이빙의 수행주체 역시 민간영역 또는 지역의 자체조직으로 이러한 조직들은 기록을 관리함은 물론 문화적 또는 교육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즉 지역 아카이빙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위한 학습 또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키워나가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⁵⁾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기록관리와 아카이빙 역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색깔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지역내부에서 바라는 지역의 ‘표상화’일 것이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중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지역민들 스스로가 바라는 지역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 아카이빙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과의 협력 내지는 병행구조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5) 지역과 개인의 문화적 토양을 일구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지역 아르페(Local Archpe)라고 한다. Archpe(아르페)는 ‘지휘하다’라는 의미의 arche(아르케)와 ‘토양’이라는 뜻의 pe(페)의 합성어이다. 즉 ‘Local Archpe’는 지역을 이끌고 일군다는 의미를 가진다. - 이영남, 「마을문화대장간(Community Archpe) 시론」, 『기록학연구』, 18, 2008 참조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지역기록화방안 연구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논지이다. 지역의 과거기록 수집은 물론 앞으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염두에 둔 지역기록생산전략을 통해 지역 아카이빙의 지속화방안 역시 강구해볼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본고에서 논의되는 방법론은 공공기관보다는 지역 아카이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단체 또는 민간영역을 염두에 두었음을 밝혀둔다.

2. 지역 아카이빙의 이론적 배경

1) 지역과 지역 아카이빙

(1) 지역과 지역성

지역(Local)의 개념은 공간적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공간적인 개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의식으로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범위를 말한다.⁶⁾ 대개 오랜 시간동안 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반해 행정적인 개념, 즉 경상도 혹은 전라도와 같은 지역들은 물리적 혹은 지리적인 기준에 의해 나누어진 범위를 말한다. 하지만 행정적인 개념 역시 오랜 역사의 공동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경기도나 오사카 또는

6)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그 범위가 반경 2km 내외로써 공동체 또는 어떠한 문화나 현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한다.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할 때 그 어휘 속에는 역사적 동질성이 이미 내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및 행정적 개념에서의 지역은 오랜 역사와 자연환경 및 기타 요소들을 반영하여 현재의 지역을 형성하여 온 것이다.⁷⁾ 즉, 지역이 나누어진 배경과 흐름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지역적 특성들을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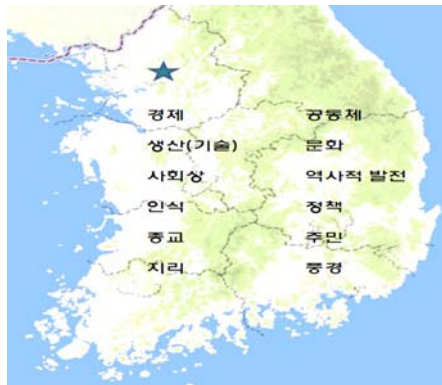
지역성(Locality)은 주로 문화인류학 혹은 역사학에서 다루어져 왔던 개념이다. 지역성은 우선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한 지역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확연하게 구별된다면 그 곳이 다른 곳보다 보다 강한 지역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한 지역 내의 사람들이 역사와 삶을 같이 하며 공통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실제적인 조건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지역성은 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계 짓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성격을 말하는 지역성을 영어에서는 'Locality'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 'Locality'에는 지역과 지역성이라는 의미 모두가 존재한다. 이것을 통해 지역성을 담고 있는 곳이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는 지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

7) 김승환, 「지역문화의 개념과 의의」, 충북대학교, p.3.

8) 윤천근, 「문화 속의 우리와 타자-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대한철학회 논문집』, 2003, p.251.

측할 수 있다. ‘Locality’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Locality’는 한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나 실제의 일들이 빚어내는 고유한 특성 내지는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리처드 콕스(Richard Cox)는 ‘Locality’를 지역민들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 일체감을 가지는 지리적인 지역이라고 하였다. 한 지역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의 평가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시각에서 ‘Locality’를 정의한 것이다. 즉, ‘Locality’를 판단하는 기준과 평가는 중앙이나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구성원 간 공동의 인식이나 환기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콕스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감하거나 동질성을 느끼는 항목들을 <그림 1>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곧 지역 또는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¹⁰⁾



<그림 1> Locality의 구성요소

9) ‘Locality’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The fact or quality of having a position in space. 2. The features or surroundings of a particular place. 3. The situation or position of an object. 4. An area or district considered as the site of certain activities; a neighbourhood. -(<http://en.wiktionary.org/wiki/locality>)

10)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Scarecrow Press, 1996, p.10.

콕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요소들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지역의 주제별 구성요소

영역	요소
지역문화	주민, 문화, 종교, 공동체, 내부인식
지역역사	역사적 발전, 지역보도
지역사회	경제, 생산, 행정, 정치, 교육
지역공간	지리, 풍경, 자연환경, 건물

<표 1>의 영역들은 어떤 한 지역을 아카이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류하여 구성한 것이다. 먼저 지역문화란 해당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공동의 행위 또는 인식 등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체는 지역민이지만, 지역과 공감하지 못하거나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¹⁾ 지역역사 영역은 해당지역의 형성과정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개괄로서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는 지역을 이루고 있는 경제, 행정, 정치, 교육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지역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간은 지역의 경관이나 건물 및 문화재 등에 관한 것으로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순간들에 대한 기억과 보존을 위한 영역이다. 어떤 지역이든지 내부에는 여러 현상들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다만 지역 아카이빙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지역성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보다는 중앙을 초점을 맞추며 ‘전체’를 지향했던 과거

11) 이영남, 「마을문화대장간(Community Archpe) 시론」, 『기록학연구』, 18, 2008, p.246.

로부터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체적인 지역을 표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초점을 다름 아닌 특정지역의 삶과 지혜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성에 맞추어야 한다.

(2) 지역 아카이빙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즉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카이빙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빙(archiving)은 본래 “공적인 기록의 보존을 처리하는 과정” 또는 “컴퓨터 파일의 일시적 백업 컬렉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원에 대한 보존을 지칭한다. 또한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이 생성될 당시의 모양과 느낌까지도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이를 참고한다면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의 기록을 보존함은 물론 ‘기록’과 ‘기록화’라는 과정을 통해 지역 또는 장소와 같은 삶의 증거라는 공동의 유산을 재생하는 아카이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아카이빙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의 변화사를 기록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의 삶과 풍경을 기록하여 지역 아카이브 또는 지역기록관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여 지역민의 생애와 문화를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지역 아카이빙은 단순히 지역의 풍경 또는 경관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보존

12) 이경관, 「디지털 아카이빙 보존 전략에 관한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빙 동향 연구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10.

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 아카이빙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지역 아카이빙은 기존의 국가기록 관리체계(National Archiving System)의 틀에 맞춰 이루어지는 기록관리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로컬빌딩(Local Building)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록보존 작업을 의미한다.¹³⁾ 지역 아카이빙의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앙과 지역 간의 기록에 대한 가치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지역적 필요성이다. 즉, 중앙 또는 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록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 지역의 삶에서 비롯된 지역지식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여 콘텐츠화한다면 가치 있는 공유가 가능한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존적 필요성으로 지금 아카이빙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다시 찾을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것이다. 재개발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보존 필요성을 뜻하는 것으로, 철거가 결정되어 사라져버린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구의 낙원상가,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피맛골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역 아카이빙 필요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라지는 곳이나 중앙과 대비되는 곳이 아닌 문화적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종로구의 인사동 또는 대학로와 같은 문화지구¹⁴⁾를 들 수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결국 지역을 아카이빙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라져가

13) 이영남, 「마을문화대장간(Community Archpe) 시론」, 『기록학연구』, 18, 2008, p.249.

14) 문화지구란 특정자원이 밀집한 지역을 뜻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처음 제도로 도입하였다.

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역기록의 유형과 범위

지역기록은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기록을 말한다. 지역기록의 생산배경은 곧 지역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참고점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 출처(territorial provenance)”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역 출처는 벨라도(Bellardo)가 주장한 것으로 지리적 요인에 기반한 출처 개념을 뜻한다. 즉 하나의 보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자료가 그것이 만들어진 지역의 문서로 구성된 기록 집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¹⁵⁾ 벨라도(Bellardo)는 지역 출처와 함께 민간기록(private records)을 비(非)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¹⁶⁾ 벨라도의 주장을 참고하여 지역기록을 정의하면 “지역기록은 지역을 그 출처로 가지며 특히 비(非)정부 기관의 기록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기록의 대상으로 정부기관 출처의 기록 역시 포함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지역을 둘러싼 당시 상황이나 정책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기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 아카이빙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다. 왜냐

15) Bellardo, Lewis J. and Bellardo, Lynn Lady,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92, p.35.

16) 벨라도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관으로 민간 보존 기록관(private archives)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록관을 뜻한다고 하였다. 민간 보존 기록관은 공공영역의 기록이 아닌, 민간 부문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일반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보존 기록관으로는 기업 보존 기록관, 대학 보존 기록관, 종교 단체 보존 기록관, 병원 또는 정당, 사회단체 보존 기록관 등이 존재한다.

하면 지역 아카이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카이빙의 목적과 범위설정의 결과와 지역기록 분석결과를 대입하여 실제 수집할 기록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기록을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역기록의 유형

영역	주제	공적기록	사적기록
지역 문화	주민	-지역의 인구추이통계 -지역의 유명인사 관련기록	-지역원로에 관한 기록 -지역원로에 대한 구술기록
	공동체	-공공기관 주최의 행사기록 -지역에 대한 언론·사설자료 -지역의 민원기록	-지역의 문학, 민속, 기행문 -지역공동행사 관련기록 -지역회의자료 -지역내부 건의 및 민원자료
	종교	-지역의 종교단체 내부기록	-지역 종교단체관련 기록
지역 역사	역사적 발전	-지역의 행정체제관련 기록 -지역의 주요사건 공적기록	-지역의 형성과정 및 역사
	사회상	-지역통계 지표 -행정기관 지역연표	-지역소식지 -지역생활사
지역 사회	경제	-지역경제사 -지역의 생산지표	-지역 내 영업시설 물가지표
	행정·정치	-지역 국회의원 선거기록 -지역관련 도시계획	-지역 국회의원 개인사 -지역조직 선거기록
	교육	-지역 내 교육시설 현황 -지역학교 진학률 -지역학교 교사임용 기록	-지역학교 교과서 -지역학교 가정통신문
지역 공간	지리·풍경	-지역관할구청의 행정구역기록 -지역관할구청의 항공촬영기록	-지역의 지리변화 -개인촬영 사진기록
	건물	-재개발 관련 의무기록화 기록	-문화재 사진기록 -건축물 디자인 기록

지역기록은 공적기록과 사적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일상적인 업무나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비일상적인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적기록을 예로 들면 지역사회를 연구하고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의 기록들이나 지역사회를 보도한 외부기록, 그리고 지역의 행정기록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적기록은 지역에 따라 특색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해당 자치구청의 소장기록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홀트아동복지회가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청의 경우에는 홀트관련철, 입양아 국적상실 관계철 등의 입양아 관련기록물이 상대적으로 많다. 서울시 종로구청은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까닭에 다른 자치구청에 비해 업소의 개업과 폐업에 관한 기록물이 두드러지고, 의류업의 동대문구청, 공장시설 등의 구로구청 역시 그 특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구청들이 목록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 특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해당지역의 역사와 지역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들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사적기록 대부분은 공적으로 기록화가 되지 못한 것들로서 흔히 이러한 것들을 민속지 혹은 민속지식이라고 부른다. 즉, 특정지역만의 지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노하우(know-how)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축제나 행사기록 또는 기타기록 등을 통해 인적·물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기록은 대체로 매체의 종류가 단조로운 공적기록과 달리 사진, 영상, 그림, 에세이, 음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기록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중앙을 보는 잣대로서 지역을 접근할 경우 지역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지역 아카이빙 사례

<표 3>의 국내 지역 아카이빙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기록물관리기관의 의무설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지역이 대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범위, 즉 시·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삶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공공기록과 국가지정기록물 위주의 수집 및 관리를 주로 하게 된다.

<표 3> 지역 아카이빙 국내사례

연구과제명	대상	수행주체	목적	결과
풀무원 설립 프로젝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충남대 기록관리학과 마을 아카이브즈 구축 사업팀	기록문화의 지역자치를 실현하는 최초의 면단위 아카이브즈 구축	현재 진행 중
함백역사 복원사업	정선군 신동읍 함백역	함백역복원 추진위원회	근대문화유산을 지역의 영원한 기록으로 아카이빙	함백역의 원형복원 및 제1호 기록사랑마을
성미산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성미산 마을	성미산 아카이브 추진위원회	통합문화공간으로서 의 마을 기록물 보관 소 설립	현재 진행 중
파주시역사자료 보존시스템구축 용역사업	파주시	한국문헌정보기술	소멸되어 가는 도시 의 역사기록보존	파주시 역사자료 보존 시스템 구축
도시경관 프로젝트	아현동, 세운상가, 낙원상가	문화우리	기록과 기억의 복원	사진기록전시회 및 경관기록화작업
새만금 프로젝트	새만금 지역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새만금 지역의 역사 아카이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백두대간 마을 기록화	백두대간 산간마을	코리아루트	산간마을 영상종합기록화	민속콘텐츠 구축 및 활용

이 중 풀무관 설립 프로젝트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먼단위 아카이브즈 구축사업이다. 이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마을의 중심에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아카이브즈이다. 풀무관 설립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기능과 현재의 삶을 위한 도서관 및 소통 공간의 역할까지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도서관 및 문화기관에서 활용하는 식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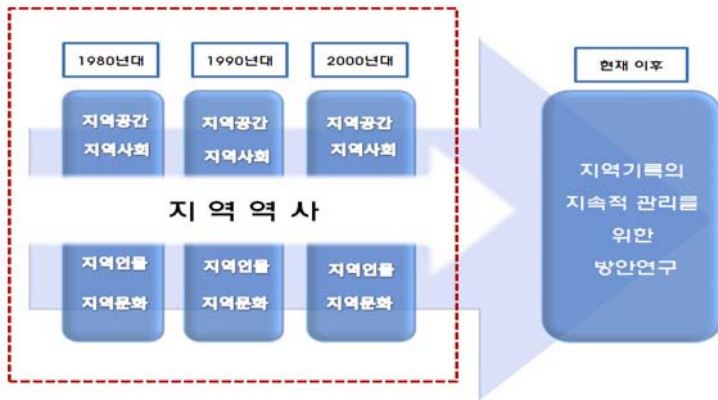
<표 4> 지역 아카이빙 해외사례

연구과제명	대상	수행주체	목적	결과
라스베이거스 건설 100주년 기념 전시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박물관	라스베이거스 100년의 기록화	기념 전시회 개최
루베 아카이브	루베	국립 아카이브	공업관련 아카이브 구축	지역 아카이브설립
함부르크 아카이브	함부르크	국립 아카이브	기억의 저장과 주민의 삶터 보존	생활사 아카이브설립

해외 지역 아카이빙의 사례 중 2005년 말 라스베이거스의 클라크 카운티 박물관에서 「철로 변의 작은 마을에서 뜻밖의 황재에 이르기까지(Whistle Stop to Windfall : 100 Years in Las Vegas)」란 주제로 라스베이거스 100년의 기록을 전시한 전시회는 철로 변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라스베이거스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지역사를 소중한 유산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서구사회는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설립 목적 역시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 나아가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대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이들의 목록만을 관리하여 지역 아카이브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편중을 막아 지식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집한 자료들은 연구와 조사, 검증과 가공을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게 돼 향후 활용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경제 및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해가는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역기록 수집절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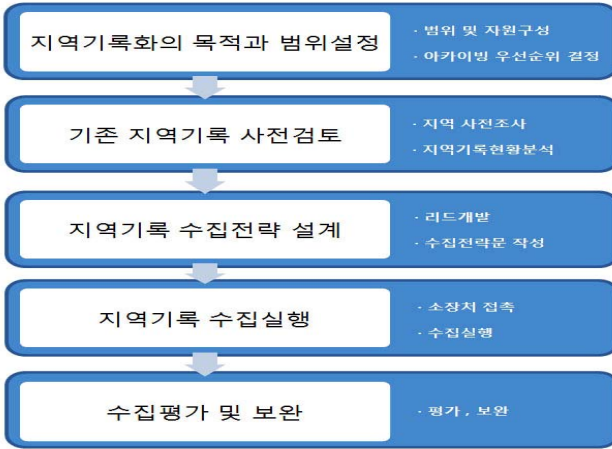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아카이빙 배경도

지역 아카이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는데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현재로부터 과거의 것, 즉 현존하고 있는 지역현상 혹은

사라져 복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것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생산하여 보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말한다. <그림 2>에서처럼 한 지역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누적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의 속성들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거시적으로만 알고 있던 한 시대를 미시적으로 아카이빙하는 형태가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두 번째 유형은 지속적인 삶과 지역성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들에 대한 생산과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의 과거를 수집하거나 복원하여 지역성을 형성한다는 측면에 가까운 수집과정이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지역이 앞으로 지속해나감에 있어 지역성을 보존해줄 수 있는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지역을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또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의 경우 매뉴스크립트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기초하여 수집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생산을 통제해야 할 기록의 경우 매뉴스크립트에 비해 일련의 생산정보와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 행위의 결과로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나간 기록에 대한 수집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단위의 범위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기록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문

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양을 한 번에 기록관리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기록을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지역기록수집절차

이러한 지역아카이빙을 위해 지역에 대한 기록화(Documentation)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본 장에서는 지역기록수집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1) 지역기록화의 목적과 범위설정

(1) 지역기록 수집을 위한 아카이빙 범위 및 자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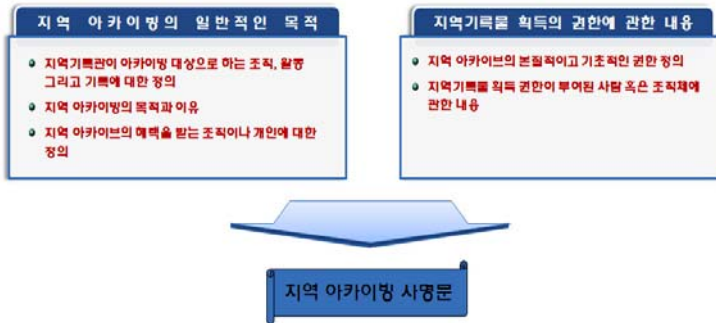
① 지역 아카이빙 범위설정

지역 아카이빙에서의 범위설정은 지역 내의 무엇을 아카이빙

할 것인지를 정해 수집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을 잘게 나뉘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국지적이고 단계적인’ 아카이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대한 행정적·지리적·역사적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흔히 지역 아카이빙이라고 하면 지역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문화라는 현상은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에 있어 행정과 문화적 측면은 그 범위를 혼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에서 정의해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기록 관리나 수집에 중점을 두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기록 이외의 것들, 주로 무형적인 현상들을 아카이빙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개 지역 안에는 상당히 많은 조직들과 방치된 기록들이 존재한다. 조직들 뿐 아니라 지역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관련된 개인기록들도 산재한 상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록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국지적, 그리고 단계적 아카이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범위를 지정하여 국지적으로 실시하되 그것을 단계별로 향후 몇 년에 걸쳐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단계별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지역의 어떠한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지역 내부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내부에서 ‘설립 30주년’ 등과 같이 의미 있는 시기를 맞이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아카이빙해야 한다.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의 삶과 오늘을 기록하여 공유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②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 작성

만약 지역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 내 기록관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을 바탕으로 하여 수집목적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의할 수 있다.¹⁷⁾ 일반적으로 사명문은 수집기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목적이나 방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문화된 사명문이 없다면 수집정책이 매번 달라질 수 있고 결국 비체계적인 주먹구구식 수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목적은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이 드러나도록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의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4>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 구성요소

17) 일반적으로 사명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기록관 또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적 진술, 혹은 컬렉션의 목적 진술 2. 기록물 획득의 권한 및 권위 진술문

18)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1984.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을 작성하면 <표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아카이빙 결과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까지를 염두에 두었다. 이때 사명문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심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철거가 진행 중인 종로구 피맛골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표 5> 지역 아카이빙 사명문 예시

피맛골 아카이빙 사명문

피맛골 아카이빙의 사명은 피맛골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지역문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맛골은 오랜 시간 동안 서민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골목길 문화와 다양한 개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으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심환경정비사업에 따라 피맛골의 원래 모습과 문화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공간과 문화 등을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피맛골 아카이빙의 목적은 피맛골의 공간과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화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추억을 모아 피맛골 거리를 재현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있다. 피맛골 아카이빙을 토대로 구성될 수 있는 피맛골거리아카이브즈(가칭)의 업무와 기타 사항들은 아카이빙을 수행한 지역기록보존위원회(가칭)와의 협의 하에 구성한다. 피맛골거리아카이브즈의 운영 정책과 절차 역시 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후략)

③ 지역 아카이빙 자문단 구성

범위와 목적설정 이후에는 아카이빙을 위한 지역가치 분석 및 수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수집정책과 지역 가치평가 등의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지역과 관련된 전문가와 지역민들로 지역 아카이빙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단은 지역의 기록연구사, 문화단체, 공공기관, 지역학자, 콘텐츠 개발사, 그리고 지역민과 같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지역역사 및 발전 배경, 그리고 지역기록의 생산과 보유, 그리고 이용, 그리고 지역 아카이빙의 전략 등에 관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표 6> 지역 아카이빙 자문단 구성

구분	소속	개입시기	역할
지역주민	자문팀	현지조사, 가치분석	지역성 도출조사 참여
지역사학자	자문팀	현지조사	지역성 도출시 자문
관할 공공기관 직원	자문팀	리드개발, 소장자접촉	관할 소유 지역기록 파악
기록연구사	기록팀	가치분석, 평가 및 제설정	지역기록의 선별 및 평가
기록관리전공	기록팀	기록관리 실무 담당	기록관리 실무 담당

만약 지역 내 기록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표 6>와 같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지역 아카이빙 수행주체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기록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은 수집대상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선별결정을 위한 지적인 틀을 제공하여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판단을 객관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수집의 범위와 절차를 정의하여 불필요한 기록의 수집을 사전에 방지해준다.¹⁹⁾ 함은 너무 보편적이거나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집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한 수집정

19)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08, p.75.

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장 컬렉션 분석, 기능 분석, 수집대상 분석, 소장환경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⁰⁾ 또한 그는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로 ①기관의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②수집 범위와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③수집지침과 제한 ④타보존소 혹은 다른 기록물 소장자와의 협력 유형 ⑤처분진술문 등을 꼽았다.²¹⁾ 즉, 수집정책은 기관의 역할과 성격 그리고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집정책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지역 아카이빙에 대입시켜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지역 아카이빙 수집정책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수집의 사명과 목적	지역을 아카이빙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및 기대효과
수집범위의 명확화	지역 아카이빙의 목적에 따른 수집분야 및 주제, 수집 지역의 지리적 영역, 시간적 범주 등을 정의함.
수집 우선순위	지역기록현황 및 지역의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수집 우선순위 결정. 국지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수집의 조건	지역기록수집주체, 역할분담, 접근 및 소유권 설정, 재정지원 및 물리적 공간 등 합의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방법과 절차, 이관방법 등
수집협조	지역 내 수집기록과 관련하여 자문단 구성 및 협조
수집기록 저작문제	지역기록처분 및 저작권, 소유권, 출판권 등 논의

20) Ham, Gerald F.,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93 ;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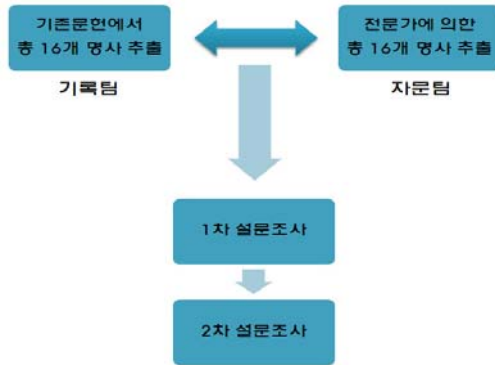
21) Ham, Gerald F.,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93 ;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 44.

(2) 지역성 가치도출을 통한 아카이빙 우선순위 결정

그 지역만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역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성 도출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²²⁾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곧 지역 아카이빙의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지역성을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역성 도출은 앞서 구성된 자문단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하여 도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어의구별척도법’²³⁾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성 가치분석을 시도하였다. 어의구별척도법은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몇 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일관성 또는 변화를 통해 가치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이것을 적용하여 지역성 가치도출절차를 구성해보면 <그림 4>와 같다.

22) 아카이빙 우선순위절차를 정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지역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때나 혹은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참고로 삼기 위한 척도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23) ‘어의구별척도법’이란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뜻을 몇 개의 차원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척도로 심리학 분야의 측정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5> 지역성 가치도출 절차

지역성 가치도출은 먼저 자문단의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를 나타내는 명사를 추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32개의 명사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여 설문지의 값이 될 명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명사들로 어의척도 조사지를 구성한 후, 총 2차에 걸쳐 지역민 혹은 지역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의 일관성 및 교차의미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아카이빙의 우선순위가 도출되는데 이것을 지역 아카이빙의 참고할 만한 척도 내지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아카이빙을 진행함에 있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누구를 위한 아카이빙이었는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1차적 혜택은 지역에 속해 있는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

존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2차적 혜택은 지역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의 결과물을 토대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서비스한다면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 아카이빙 우선순위를 통해 보다 밀접한 요구 및 기대를 반영한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기록 현황분석

지역 아카이빙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해당범위에 대한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 및 현황, 그리고 기록 소장처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현황분석은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기록의 생산유무와 소장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에 있어 보다 무엇이 시급한지 혹은 현실적으로 어떤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해당지역현황은 주로 문헌을 통해 조사하는데, 문헌조사란 수집대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자료와 연구를 참조하여 수집 기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문헌조사의 내용은 수집, 분류, 기술 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쓰임을 고려하여 문헌조사 필수항목을 선정해야 한다.²⁴⁾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지역의 연구 목록을 작성하고 연구 성과, 연구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항목으로 지역의 행정 및 사회기관을 파악하여 이들이 보

24)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기초연구」, 2005.

유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단체를 파악하여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관지 또는 지방지와 그 목록을 작성한다. 넷째, 지역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고 인용된 출처를 파악하여 원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각 분야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지역과 관련된 연구자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접촉하여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딱히 유형화 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개인소장 자료²⁵⁾를 확보할 수 있고 구술자료 작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헌조사가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과정이라면 현지조사는 지역과 관련된 기관 및 인물을 통해 실제 수집할 기록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때 앞서 실시한 문헌조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및 관련법인, 박물관, 지역사편찬기구, 도서관 및 지역원로, 중요인물 등의 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민 또는 지역원로,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지역운영 및 사정에 밝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관련된 인터뷰 및 소장기록 유무를 파악하여 수집범위와 실제 지역기록현황을 대조해야 한다. 소장기록을 파악할 때는 기록을 통해 당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 어떤 기록들이 생산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 마지막으로 입수가능 또는 불가능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두어야 한다.

25) 개인의 낙서에서부터 일기, 졸업장, 가계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8> 지역기록 현황분석

영역	주제	기록명	생산 일자	소장처 (담당부서)	기록 구분		기록 매체 유형	비고
					공적 기록	사적 기록		
지역 사회	교육	2008년도 상반기 국어 문화학교 국어전문교 육과정 일정안내	2008 0125	마포구청 세무2과	○		문서	주민을 대상 으로 한 국어 교육
지역 문화	공동체	2007년 2월 총회준비 위원회 회의록	2007 0525	성미산마을		○	문서	

지역기록 현황분석은 지역기록의 영역과 주제에 따라 <표 8>과 같이 지역기록을 사전 검토하여 수집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절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기록의 수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²⁶⁾ 이렇게 지역기록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아카이빙의 재료가 되는 기록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기록 현황을 분석하면서 문헌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황분석을 진행하면서 조사의 전 과정, 즉 소장자 등과의 접촉이력과 그것을 통해 작성된 잠재적 리드, 현지방문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 향후 잠재적 기록화작업을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6) 마포구청(<http://www.mapo.go.kr>),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http://www.mapocoop.org>)의 기록물공개목록 참조

3) 지역기록 수집전략 설계

지역기록 수집전략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이뤄진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앞서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기록의 소재 및 획득여부를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지역기록 대상을 정한 다음 지역기록의 주제별 영역에 따라 수집방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집된 지역기록에 대한 분류 및 관리, 활용, 그리고 폐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전 과정에 걸친 기록관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기록수집전략을 작성하여 현재의 지역기록화 상황과 필요로 하는 추가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보고 및 관리, 결정한다.

(1) 리드개발

리드파일은 앞서 수행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는데, 그 내용은 잠재적 기증자, 기록물 현소장자 및 소장처, 기록물 내용, 소장위치, 소유자와 접촉 및 협상, 접촉대상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리드의 정보원에 대한 정보, 잠재적 이관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기록을 수집할 때 리드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기증자 또는 잠재적 소장자의 기록물이 지역의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예를 들어 농부일지를 통해 생산자인 농부와 다른 농부들 혹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드에 담긴 정보를 주기적

27)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83.

으로 갱신하는 것은 물론 정보입수 또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민들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지역기록수집 전략문 작성

리드과일이 준비가 되면 지역기록수집 전략문을 통해 실제 수집전략을 작성해야 한다. 지역기록수집 전략문에는 수집대상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집과 관련된 목적 및 변경사항들이 담기게 된다. 대개 수집에 있어 전략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²⁸⁾

1. 현재 기록화 상태 및 요구에 관한 정보를 모든 관련자들에게 보고
2. 관련자들이 기록의 기록화 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3. 기록수행주체가 더 나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시로 보고

이러한 전략문을 통해 지역 아카이빙의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수집활동의 원동력이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문은 기록을 수집하는 수행주체가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앞서 조사된 기초조사 및 리드과일, 기록화대상 선별 결과, 그리고 수집방법 및 일정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다. 즉 전략문은 기록수집에 필요한 실무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담는 것으로 수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절차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기록수집절차를 작성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지역 기록관의 존재유무이다.

28) 김성일, 「기록화 전략의 일반모형과 그 적용」,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6, p.29.

만약 지역 기록관이 있다면 지역기록 수집을 도울 수 있는 자문단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일이 인적 또는 물적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아카이빙임을 고려한다면 지역 기록관을 아카이빙의 초기부터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절차는 물론 아카이빙의 전 단계를 작성할 때 지역 기록관의 규모가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조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지역기록 수집실행

(1) 소장자 접촉

전략문과 프로세스의 절차에 따라 실제 수집을 실행하는 단계는 기록물 소장자를 접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잠재적소장자와의 1차 접촉은 주로 서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집대상 범위와 관리방식에 대해 적어 보낸다. 하지만 지역기록을 수집할 때는 서신보다는 자문단을 활용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편이 좋다. 자문단은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자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까지 바랄 수 있다. 1차 접촉 시기에는 지역 아카이빙의 목적을 피력하며 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접촉시기에는 실제 수집할 수 있는 기록과 그에 대한 가치판단 및 생산할 필요가 있는 기록, 즉 구술기록 또는 사진 및 동영상기록 등을 파악한다. 소장자를 접촉하는 목적은 기록물 소장여부

와 평가 및 입수가능성 파악이 1차적이지만 부수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따라오기도 한다. 즉 지역 아카이빙 및 기록수집의 취지와 수집을 수행하는 지역기록보존위원회 등의 소개, 수집기록물 대상 및 범위, 수집된 기록물의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브로슈어나 기타매체로 전달함으로써 모든 잠재적 소장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설사 기록을 소장하지 않았거나 수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더라도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진행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소장자와의 접촉과정과 결과 및 추가일정 등과 같이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은 케이스파일에 기입하여 리드파일을 보완하도록 한다.

(2) 수집실행

수집대상으로 선정했던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자문단을 중심으로 수집여부를 결정한 후에 기록물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때 현지에서 수집을 진행했던 조사자의 의견을 담은 현장조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아카이빙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집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조사보고서에는 수집평가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인 소장내역, 조사일시, 장소, 조사자, 기록물이력 등을 기입한다. 이 중 소장내역은 수집주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이를 통해 소장기록물과의 중복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집이 결정되면 수집이유와 활용계획을 추가하여 수집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수집을 포기했다더라도 그에 대한 이유 역시 기입하여 향후 참고하도록 한다. 기록물에 대한 이관은 기증과 위탁, 구매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다. 가장 우선시할 방법은 기증으로 소장자가 기증의

사를 밝혔다면 이송계획을 수립하여 실제조사 없이 바로 수집하도록 한다. 만약 소장자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나 기증을 망설일 경우에는 기증유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자문단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후 기증자에게 이관 이후의 기록물 관리방식과 이용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기증조건에 대해 협의한다. 기증조건에는 기록물 공개여부 또는 비공개조건 등을 포함하여 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인 이관까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위탁의 경우는 기록물 활용기간 및 반환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기증 또는 위탁이 어렵다면 기록물 소장상태와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위탁 또는 구매의 경우는 기증과 달리 법적조건 또는 재정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집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5) 수집평가 및 보완

기록수집이 끝나면 수집전략문의 수집목적과 범위 및 방법, 목표량 등에 맞게 수집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수집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 변화 등을 기록하고 수집에 고려하였는지 역시 검토한다. 만약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수집범위가 변경되거나 목적이 변했다면 지역기록화의 범위 재설정과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새로운 지역기록수집 전략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한 검토는 <표 9>의 지역기록수집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기록수집 체크리스트

1. 지역출처가 명확한 것인가?
2. 수집기록의 소재정보 및 원복기록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는가?
3. 소장기록물과 중복되거나 편중되지는 않는가?
4. 해당 관련자의 활동 및 생애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5. 기록에 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이 가능한가?
6. 수집기록의 보관, 목록작성 등을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었는가?
7. 대여 또는 인수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가?
8.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제공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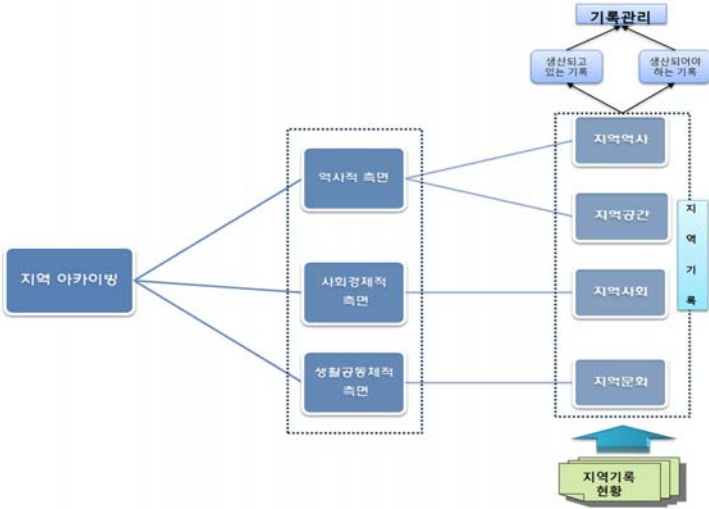
수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지역기록수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역 아카이빙 지속화 방안

1) 지역기록의 생산전략 도입

지역 아카이빙에 있어 과거 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들에 대한 통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통해 구현한 지역의 성격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한다. UNESCO 한국위원회의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ditional Historic Villages)’에서

는 마을의 역사적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남겨야 하는 여러 측면들을 강조하였는데, <그림 6>에서와 같이 역사적·사회경제적·생활공동체적의 3가지 영역들이다.²⁹⁾



<그림 6> 지속적인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필수기록 분석체계

이러한 3가지 측면은 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해 영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마을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보존해야 할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아카이빙의

29)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전통역사마을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한국정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ICOMOS 한국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 2002년에 제출하였다.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문화유산의 가치가 매우 풍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써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 보호와 지속적인 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아카이빙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http://www.unesco.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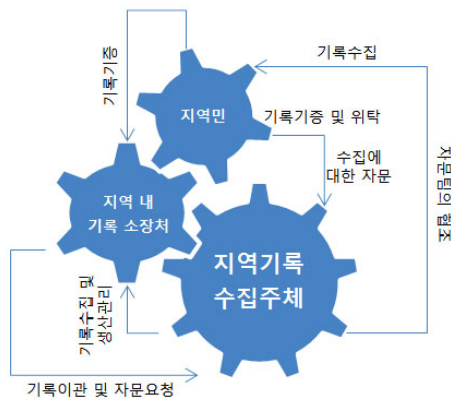
기록생산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가지 측면을 가장 포괄적인 범주로 설정한 다음, 그것에 지역기록의 영역과 주제, 그리고 하위기록유형들을 연결한다면 현재의 지역기록 현황과 생산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지역기록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생산하고 있는 기록과 생산해야 하는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지속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아카이빙 네트워크 구축

지역 아카이빙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기록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을 아카이빙하며 축적한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면 향후 동일 및 다른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앞서 지역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수행 및 관리해나갈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지역 아카이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록관리조직 또는 기관이 설립되어 민간에 의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면 지역의 관할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이들을 견인하여 지역민이 주체가 된 지역 아카이빙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구성이 전제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는 크게 지역기록수집과 관련한 수집네트워크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실행이 중요하다. 지역 안에서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장기록에 대한 목록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집기록에 대한 중복이나 획득여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내부적인 공유라면 외부적으로는 온라인(Online)을 이용하여 소장기록물의 물리적 위치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목록을 공유할 수 있다. 한 지역에 대한 소장정보가 제공된다면 공공기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개인 등의 수집목적과 범위를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아카이빙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법론을 지침 또는 매뉴얼로 작성한다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집네트워크는 <그림 7>과 같이 지역기록 수집주체와 지역 내 기록소장 단체 및 개인,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7> 지역기록수집 네트워크

운영네트워크는 기록수집 이후의 관리 및 결과물을 이용한 활용의 측면을 말한다. 지역 아카이빙의 결과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존 및 관리·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스트리밍

(Streaming)이 가능한 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Website)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빙 결과물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때 지역 내 단체 및 개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지역 아카이빙 웹사이트와 연결하여 지역의 온라인 허브(Online Hub)를 구축할 수 있다. 즉 단위조직의 게시판들을 하나로 묶은 일종의 지역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존재하는 콘텐츠들은 지역의 소중한 아카이빙 소스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지역 내부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기록관 또는 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학교 등의 시설에 기록보존을 위한 공간을 임시로 마련한 다음 온라인을 통해 결과물을 전시해야 한다. 그 밖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완하여 네트워크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카이빙의 토대가 더욱 탄탄해질 거라 생각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지역기록화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기록수집과정을 위해 지역성 개념정의, 지역기록 유형과약, 그리고 지역기록수집절차를 설계하였다. 지역의 과거에 대한 것을 남기고 보존하고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남기는 일, 본고에서는 이것을 지역의 지나간 사건과 역사에 대한 지역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이어 지역

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생산해야만 하는 기록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생산기록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오늘 이후의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기록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기록을 수집한 이후에는 그것을 활용한 지역재현 및 연구, 그리고 콘텐츠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지역기록관에서 지역기록을 서비스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지역커뮤니티로서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동체 강화의 효과이다. 지역 아카이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정주성과 공동체를 강화시킨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민 간의 유대 또한 강화시켜 지역행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재생과 정비의 효과가 나타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정비가 소홀하거나 범죄가 빈번했던 장소의 경우 지역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장소가 개선되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술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이미지 개선의 효과이다.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곧 지역에 대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즉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지역 기록화방안은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전 단계로써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여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의 전 과정이 아닌, 지역기록의 수집과 관리 측면 정도만 다루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욱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삶과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지역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남겨질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Lots of cultures, memories, histories of the local life have disappeared. Some sectors of universities and religion have keep their records in manuscript archive only. On the other hand records of public sectors were at least able to be managed by the records management law. Citizen's groups and academic bounds were also roles to get public records strong. However can we just describe whole body with only public records?

As records management law a record of private sector which has value of preserving can be managed under national protection. Yet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 is not obligate. Only stressing on public records is like what dictatorial government acted in past years. It is what we ignore diversity and request of community. We need to move our view that we have focused on public and central sectors to private and local sectors. Local records management based on locality could help to complete the entire puzzle. The way complete the puzzle is various and wide spheres including from cultural space to being extinct village.

Locality is defined as the property in certain area or distinctiveness of locals. Establishing production strategies is as important as collecting records produced over the past years for local archiving. Local archiving has to be

regionally conducted in phase. Moreover common wealth and recognition of communities are reflected in the acquisition process. In next to archiving local organizations and private records according to collection policy, methodology on local archiving needs for archive management and use in various public and private fields. This methodology could be possible by building a local archive networking tool.

It is true that Local archiving is not familiar and clear yet. If we can turn the effort for public records we have made to endeavor for private sectors, we might expect big fruits in private sectors. We easily emphasis on globalization or internationalization, our daily lives start on our villages. Setting aside our small communities, such a puzzle of the whole would never be completed. This is good time to begin finding lost puzzle for future. The key that can find lost puzzles be held in archiving localities.

Key words: Archiving Locality, Local records, Private sector, Locality